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4쪽

홍보 담당자	조약골	02-6406-0040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동아시아 해양환경보호 국제세미나 '무국경 바다의 친구들 세미나' 개최 -멸종위기 해양포유류를 중심으로

12월 8일(목)부터 12월 10일(토)까지

서울시 청년허브가 주최하는

'서울시 청년허브 컨퍼런스 2016-삶의 재구성 시즌 3'
협력단체 세션으로 국제 세미나 진행

●일시 : 2016년 12월 8일, 12월 10일 19:00~21:00

●장소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층 스페이스 류

- ☐ 청년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이번 '청년허브 국제컨퍼런스'에서 협력단체 세션으로 동아시아 해양환경보호 국제세미나 '무국경 바다의 친구들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육지중심 환경운동과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사라져 가는 제주-오키나와-타이완 해양동물과 그들이 살아가는 동아시아 바다의 소식을 공유하고 국경을 넘는 연대활동에대해 논의합니다.

PART1 무국경 바다의 친구들



발제1 한국 바다의 고래와 돌고래 황현진

발제2 타이완 바다의 고래와 돌고래 첩켈리

발제3 시민 참여형 고래 보호의 중요성 남종영

토론 및 질의응답

2016년 12월 8일 목요일 저녁 7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만나요!

*모든 발제는 한 · 중 · 일 · 영어로 통역 됩니다.

<PART1. 무국경 바다의 친구들>

일시: 2016년 12월 8일 19:00~21:00

장소: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층 스페이스 류

발제1) 한국 바다의 고래와 돌고래_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발제2) 타이완 바다의 고래와 돌고래_ 첩리 첩 (타이완고래협회)

발제3) 시민참여형 고래보호의 중요성_ 남종영 (한겨레)

PART2 무국경 바다의 친구들



발제1 위기에 처한 제주 남방큰돌고래 조약골

발제2 위기에 처한 오키나와 듀공 스즈키마사코

발제3 한·중 공동 점박이물범 보호 윤상훈

토론 및 질의응답

2016년 12월 10일 토요일 저녁 7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만나요!

*모든 발제는 한·중·일·영어로 통역 됩니다. *미니 풋볼 문화제가 진행됩니다.

<PART2. 무국경 바다의 친구들>

일시: 2016년 12월 10일 19:00~21:00

장소: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층 스페이스 류

발제1)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 활동_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발제2) 오키나와 듀공 보호 활동_ 마사코 스즈키 (북방 한계선의 듀공을 지켜보는 모임)

발제3) 한·중 공동 점박이물범 보호 활동_ 윤상훈 (녹색연합)

- 멸종위기 해양생물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존 활동을 하고 있는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제주-오키나와-타이완을 잇는 ‘공평해;바다가 공생과 평화의 바다’가 되길 희망하며 2014년부터 오키나와, 타이완 등 동아시아내 해양포유류 보호 단체들과 연대하며 서식지 답사, 보호활동 소식 공유를 해오고 있습니다.
- 이번 ‘서울시 청년허브 컨퍼런스 2016’의 협력세션의 일환으로 타이완 보호 활동가 켈리 첵(Kelly Tseng), 오키나와 듀공 보호 활동가 스즈키 마사코(Masako Suzuki) 등 해외 활동가와 한겨레 남종영 기자(「고래의 노래」 저자), 녹색연합 윤상훈 사무처장 등을 초대해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사라져가는 동아시아 멸종위기 해양포유류의 현실을 점검하고 시민 참여 보호운동에 대해 토론하는 ‘무국경 바다의 친구들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 본 행사는 별도의 참가비 없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 모든 발표는 한-중-일-영어로 동시통역됩니다.

무국경 바다의 친구들 발제자 소개



12/8 발제: 한국 바다의 고래와 돌고래

황현진 핫핑크돌핀스(Hotpinkdolphins, www.hotpinkdolphins.org) 대표 활동가
바다를 사랑하는 청년 환경운동가입니다.

2011년 여름, 제주남방큰돌고래가 20여년간 불법포획되어 인간의 즐거움과 이익을 위해 이용되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제주로 내려가 ‘쇼 돌고래 해방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를 만들어 멸종위기해양동물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12/8 발제: 타이완 바다의 고래와 돌고래

켈리 첵(Tseng Kelly) 타이완고래협회(中華鯨豚協會 Taiwan Cetacean Society, www.whale.org.tw) 활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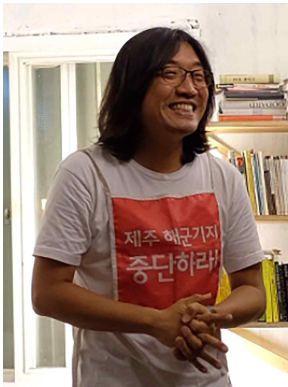
다이빙을 통해 바다 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되었고 타이완이란 섬나라에 살고 있지만 바다에 대해 너무 무지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래들이 살아가는 바다를 위해 뭔가 해야겠다고 결심하였고, 현재는 타이완고래류협회에서 대중에게 바다와 고래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2/8 발제: 시민참여형 고래 보호의 중요성

남종영 한겨레 기자

2001년부터 한겨레신문사에서 환경 기사를 써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처칠에서 북극곰을 보고 지구 온난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매년 북극권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포획되어 돌고래 쇼에 동원된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취재 기사는 서울대공원 제돌이의 야생방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저서로 <고래의 노래>, <북극곰은 걷고 싶다> 등이 있습니다.



12/10 발제: 위기에 처한 제주 남방큰돌고래

조약골 핫핑크돌핀스(Hotpinkdolphins, www.hotpinkdolphins.org) 대표 활동가
가수이자 평화활동가 입니다. 2011년 7월 제주 강정마을에서 구름비 앞 바다를 헤엄치는 남방큰돌고래들을 만나면서 핫핑크돌핀스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군기지와 풍력발전단지 등 난개발로 인해 서식처 파괴 위협 받고 있는 제주 바다의 고래들을 위해 공부하고, 기록하고, 시민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돌고래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희망합니다.

dopehead.zo@gmail.com



12/10 발제: 위기에 처한 오키나와 듀공

스즈키 마사코(Suzuki Masako) (북방 한계선의 듀공을 지켜보는 모임(北限のジュゴンを見守る会 Association to Protect Northernmost Dugong, www.sea-dugong.org) 대표 활동가

2000년 봄, 일본에서 처음으로 열린 '야생 듀공 보호 심포지엄' 참석을 계기로 일본 듀공 보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오키나와 나고 시민들과 함께 '북방 한계선의 듀공을 지키는 모임'을 만들어 무분별한 포획과 미군기지로 인한 해양 오염 등으로 위기에 처한 오키나와 듀공과 그들의 서식처를 조사하고 보존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12/10 발제: 위기에 처한 오키나와 듀공

윤상훈 녹색연합(GREEN KOREA, www.greenkorea.org) 사무처장

푸른 바다가 부르는 소리에 이끌려 2003년 환경운동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새만금 사업 중단을 위한 어민 지원과 갯벌 조사, 귀신고래와 점박이물범 보호를 위한 캠페인, 제주해군기지 연산호 조사 등 위기에 처한 생명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녹색연합 사무처장을 맡고 있으며 사람냄새 나며 가슴에 와 닿는 따뜻한 녹색운동을 꿈꿉니다.

* '무국경 바다의 친구들 세미나' 국내외 연사들과 인터뷰를 원하시는 분은 핫핑크돌핀스로 연락바랍니다. 02-6406-0040 / hotpinkdolphins@gmail.com